

연구원 소식 및 회원 소식

(사)인문지행 공동사업 진행

광주광역시에 자리한 (사)인문지행과 우리 연구원이 오는 7월 16일과 11월 5일 "음악이 있는 인문강좌"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인문지행은 인문정신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그 의미를 일상의 삶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모임이며 2014년 인문학 학술단체로 문을 열었습니다. 2016년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후 지금까지 꾸준히 인문강좌와 시민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된 <전남·북 독서리더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이번 강좌는 (사)인문지행과 우리 연구원이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16일(토) 16시에 전주대학교에서 진행될 이번 강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강좌 소식은 다음 뉴스레터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오는 6월 2일부터 진행할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해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이나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만보산 사건 - 1931년 7월 2일

“호떡 집에 불났다”라는 말이 있다. 아마도 이 관용어는 1931년 7월 만보산 사건 이후에 쓰여지기 시작했으리라 짐작된다. 이해 7월 3일~9일 사이에 조선에 있던 호떡집 대부분이 불에 탔기 때문이다. 이때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떡집에 불난 것을 한꺼번에 본 적은 없었다. 불이 난 것은 호서방네 호떡집만이 아니었다. 비단이 장사 왕서방의 포목점도, 장서방의 이발소도, 주서방네 청과상도 중국인이 경영하는 상점이란 상점은 전국에서 대부분 불에 타고 파괴되었다.

최소 백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대적인 폭동이 한반도 내 중국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자행되었다. 전세계에 퍼져 있는 화교들은 자기들이 정착한 나라에서 대개 상권을 장악하거나 최소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남과 북을 합친 우리나라에서 화교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에서 화교의 역사는 120년에 달하고 해방 전에 인구가 최대 10만에 달했지만, 지금 그 수는 2만여명에 불과하다. 이들 2만명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노동자와는 구별되는 우리 사회 안에 오랜 기간 정착해 온 소수민 집단이다. 이들 화교에게 가해진 압박과 차별과 불관용의 역사는 단일민족사회를 표방하는 우리의 배타적 민족주의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도 하다.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동남아의 화교들과는 달리 이 땅의 화교들이 기껏해야 자장면 정도밖에 팔 수 없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가 있다. 이 땅의 화교들의 고달픈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우리의 인종주의가 낳은 가장 부끄러운 사건은 역시 1931년 7월의 반중국인 폭동이다.

이 폭동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만보산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31년 5월 하순부터 중국 길림성 장춘 근교 만보산에서 조선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 사이에 수로 개설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규이다. 6월 초순 중국경찰이 개입하여 조선농민을 몰아내자, 일본의 영사경찰은 조선농민들이 법적으로 일본신민이라며 이 분규에 개입했고, 조선농민들은 일본경찰의 보호 아래 수로 공사를 강행했다. 몇 차례 충돌 끝에 7월 1일 중국농민 200여명이 조선인들이 만든 수로를 파괴하자 일본경찰이 출동하여 중국농민들을 향해 발포하였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것이 만보산 사건의 전모였다.

만보산에서 조·중 농민 간에 처음 충돌이 발생한 이래 1931년 6월부터 <동아일보>는 모두 3번 이 사건을 보도한 반면, 1927년 이래 재만동포옹호운동을 주도해 온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모두 16차례나 보도했다.

1920년대 후반 이래 중국관헌들이 재만동포를 박해하고, 또 중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조선인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의식이 퍼지면서 조선에는 반중국인의식이 자라고 있었다. 이런 반중국인감정에 불을 당긴 것은 1931년 7월2일 밤과 3일 새벽에 <조선일보>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발간한 호외였다. 호외는 '중국관민 800여명과 200동포 총돌 부상/ 장춘 일본 주둔군 출동 준비/ 대치한 일·중관헌 1시간여 교전/ 급박한 동포안위/ 기관총대 급파/ 전투 준비 중' 등 당시의 상황을 다급하게 전했다. 더구나 기사의 내용은 동포 다수가 부상이 아니라 살상당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급보는 오보였다. 오보도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만주침략의 길을 닦으려는 목적으로 조선인과 중국인의 감정을 악화시키기 위해 제공한 허위정보에 속아 넘어간 역사적인 오보였다. 조선일보 특파원 김이삼(金利三)은 장춘의 일본영사경찰서가 제공한 만보산 사건에 대한 허위정보를 현장확인 없이 타전하였고, 경성의 <조선일보> 본사 역시 특파원이 송고한 내용을 그대로 호외로 발행했다. 호외가 뿌려진 직후인 7월3일 새벽부터 인천에서 중국인 가옥과 상점에 대한 투석이 시작되는 등 한반도 전체에서 반중국인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다. 7월4일 폭동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서울 서소문의 중국인 거리에는 5천여명의 군중이 몰려들어 중국인 상점의 물품을 파괴하고 중국인들을 구타했다. 폭동은 평양, 진남포, 부산, 전주, 대구, 개성, 사리원, 원산, 함흥, 흥남, 청주, 공주, 이리, 군산, 안주, 재령, 신의주, 의주, 선천, 수원, 청주, 춘천, 마산, 선천, 운산, 해주, 안변 등 전국으로 번져 모두 400여회 이상의 습격사건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다.

총독부 경무국의 발표로는 사망 100여명에 부상자 190명,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자료에 의하면 사망 122명, 부상 227명, 국제연맹에 제출된 '리튼 보고서'에 의하면 사망 127명, 부상 393명, 재산피해 250만원이었고, 중국쪽 자료에 의하면 사망이 142명, 실종 91명, 중상 546명, 재산손실 416만원, 영사관에 수용된 난민이 화교 전체 인구의 1/3에 육박하는 1만 6,800명이었다. 폭동 직전인 1930년 말 화교의 총인구는 6만 9천여명이었으나, 폭동과 그에 뒤이은 1931년 9월18일 일제의 만주침략의 여파로 중국으로의 귀환자가 속출하여 1931년 말에는 5만 6천여명, 1933년 말에는 3만 7천여명으로 급감했다. 1992년 4월29일 코리아타운을 휩쓸고 지나간 LA폭동 당시 한국인 희생자가 1명, 그것도 폭도들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경비를 서던 사람들끼리의 오인사격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비한다면 1931년의 반중국인 폭동이 얼마나 과격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1931년 7월의 불행하고도 부끄러운 반중국인 유혈참극은 우리 민족의 순진한 동포애와 출구를 잘못 찾은 민족주의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이용당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일제의 간교한 술책이 원인이라 해도 분명한 것은 한국인의 손으로 이 땅에 거주하던 중국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해자가 되었던 사건들은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관동대지진 당시 재일조선인을 학살한 일본에 분노하는 것만큼 우리의 잘못을 기억해야 함에도...